
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참 고</h1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7.13.(화)	
책 임 자	금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 장 수(02-2100-2620)	담 당 자	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621)		
	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 병 칠(02-3145-7120)		윤 세 영 팀 장 (02-3145-7154)		

제 목 : 신한카드(주) 등 2개사에 대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하였습니다('21.7.13.)

- ☐ 금융위원회는 '21.7.13.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한카드(주)와 한국기술신용평가(주)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.
- 신한카드(주)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으며
 - 한국기술신용평가(주)는 모회사인 (주)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.
 -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여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- ☐ 금번 예비허가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('20.8월)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의 사례로서
-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 - 이를 통해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☐ 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,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하여 매월 접수할 예정입니다.

※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(이번 달은 7.30.) 접수 예정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	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	기술신용평가업
① 신청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인신용평가회사 · 기업신용조회회사(기업신용등급제공업) · 신용카드업자 · 금융기관 등이 50% 이상 출자한 법인 · 신용정보업자 등이 50% 이상 출자한 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기관 등이 50% 이상 출자한 법인 · 신용정보업자 등이 50% 이상 출자한 법인 · 특허법인, 회계법인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한국무역보험공사
② 자본금	· 최소자본금 50억원 이상	· 최소자본금 20억원 이상
③ 물적 시설	· 시스템 구성·성능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·운용능력의 적정성	
④ 사업계획의 타당성	· 수지전망의 타당성,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	
⑤ 대주주 적격성	·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	
⑥ 임원 적격성	·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, 제재사실 여부 등	
⑦ 전문성	· 신용정보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	
⑧ 인력요건	· 상시고용인력* 10인 이상 * 3년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,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	